

한숨 돌린 클린스만호...황희찬·조규성·오현규 부상 회복

클린스만 “선수 부상은 A매치 가장 큰 변수”

공격수들 연쇄 부상 털고 회복, 경기장 복귀

공격수들의 연쇄 부상으로 고민에 빠졌던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황희찬과 조규성, 오현규 등이 부상을 털고 경기장에 복귀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달 28일 9월 유럽 원정 A매치에 나선 25명의 소집 명단을 발표하면서 출발상에 우려를 드러냈다. 당시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부상은 A매치 준비의 가장 큰 변수”라며 “다행히 조규성과 황희찬의 경우 소속팀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번 소집 합류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유럽 프로축구 리그 개막과 함께 클린스만호 공격수들이 연쇄 부상을 당하며 압운이 드리워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들은 9월 A매치 전에 회복해 경기장에 복귀했다.
지난달 26일 에버턴전 후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황희찬(울버햄튼)은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크리스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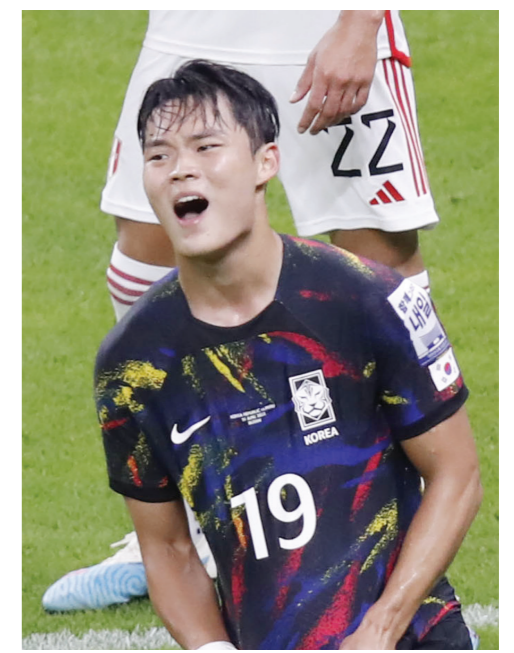
팰리스와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에서 0-1로 뒤진 후반 20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부상 정도가 알려지지 않아 우려가 컸지만 황희찬은 1주일 만에 그러운드르 돌아와 득점에 성공했다.
지난달 21일 리그 경기 도중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돼 결장했던 조규성(미트윌란)도 지난 1일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연장전까지 120분 풀타임을 뒀던 데 이어 4일에도 경기에 나섰다.
조규성은 덴마크 수페르리가 7라운드 오르 후스젠 홈 경기에서 전반 26분 덴마크 진출 후 첫 도움을 올렸다. 상대 골키퍼의 패스 실수를 틈타 공을 낚아챈 조규성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올라 브뤼힐센에게 패스했다. 브뤼힐센은 수비 방해 없이 손쉽게 골을 성공시켰다.
지난달 초 종아리 부상을 입었던 오현규(셀



타) 역시 복귀전을 치렀다. 오현규는 3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인저스와의 2023~2024시즌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십 4라운드에서 후반 31분 교체로 출전했다.
오현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



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부상 후유증 우려를 불식시켰다.
나라니 부상에서 회복한 공격수들은 9월 A매치에 소집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8일과 13일 각각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 A매치 2연전을 치른다.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신뢰를 보낸 클린스만 감독에게 부담 후 첫 승을 선물할지 주목된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4경기에서 2무2패로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3 리커브, 컴파운드 1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컴파운드 남자부 1위 최용희, 리커브 여자부 1위 정다소미, 컴파운드 여자부 1위 오유현, 리커브 남자부 1위 이우석.

도심 속 박진감 넘쳤던 세계 최정상 'K양궁' 쇼

도심 한복판에서 세계 최정상 한국 양궁의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졌다.
국내 최고 권위의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3'가 3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 통틀어 역대 최대 인원인 209명이 참가해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역대 최고 규모인 5억2000만원의 상금이 걸렸다.
대회 마지막 날 리커브에서 이우석(코오롱), 정다소미(현대백화점), 컴파운드에서 최용희(현대제철), 오유현(전북도청)이 우승을 차지했다.

은 점근성이 용이해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이날 약 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대한양궁협회도 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레임 속 국가대표 선수들과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60주년 전시 존에도 많은 사람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과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지도로 직접 활을 쏠 수 있는 양궁 체험장은 특히 큰 인기를 끌었다.
이날 모든 공식 경기 일정이 끝난 뒤에는 레전드 김진호, 서향순, 박성연, 박경모를 비롯해 현역 국가대표 김제덕, 안산, 김중호, 소채원 등이 함께 레전드 매치를 벌였다. 미래를 이

2023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00여명 관람객 찾아 이우석·정다소미 우승...컴파운드 초대 챔피언은 최용희·오유현

매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다. 유일할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이우석이 우승을 차지한 리커브 남자부 결승이 백미였다.
이우석은 결승에서 구대환(정주사청)과 5세트까지 세트스코어 5-5(30-28 28-29 30-30 29-27 27-29)로 팽팽히 맞선 뒤, 슈트오피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이우석과 구대환 모두 슈트오피에서 10점을 쫓지만 과녁 정중앙에 이우석의 화살이 더 가까이 우승이 확정됐다.
이번 대회는 항저우아시안게임과 1년 남짓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무대였다.
2016년 1회 대회, 2019년 2회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열린 세 번째 대회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열리지 못했다.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아 선수와 관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양궁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본선 및 결선 경기가 열린 전쟁기념관

유소년 선수 이환지, 엄정민도 동참했다.
팀당 10발의 화살을 발사해 승리의 승리의 누적 점수에 따라 점수당 10만원을 기부했다.
서향순이 속한 팀이 총점 합계 86점으로 승리를 차지했고, 서향순, 엄정민, 박경모, 소채원, 김제덕의 이름으로 대한체육회에 860만원을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전달했다.
협회는 “이번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전지 훈련을 마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앵발리드(프랑스 전쟁기념관)를 다시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자 2024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뜻깊은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회 현장에서 수많은 팬들이 보내준 뜨거운 응원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됐고, 이번 대회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음 대회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양궁의 매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기획 대한체육회장, 정의선 양궁협회장 등이 참여해 상금과 상패를 전달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그로스먼 코치 영입...“수비 강화”

2일 입국해 선수단 훈련 합류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존 그로스먼 코치를 영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4일 “그로스먼 코치와 계약했다”며 “미국 및 캐나다에서 약 20년의 코치 경력을 가진 그로스먼 코치를 통해 팀내 수비 조직력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로스먼 코치는 2004년 미국 서부지구 YMCA 유소년 배구팀 코치를 시작으로 델라웨어 육군사관학교, 아카디아 대학교 등에서 20년 동안 코치로 활동했다.
지난해는 캐나다 남자배구 국가대표팀의 지문을 맡았고, 최근까지는 전미대학육협

회(NCAA)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배구팀의 자원 코치로 활동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그로스먼 코치는 디그와 블록 등 수비 기술 강화로 탄탄한 수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그로스먼 코치의 전문성이 팀의 수비력 보강과 경기력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그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로스먼 코치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광주로 이동해 선수단 훈련에 합류했다.
김동원 페퍼저축은행 단장은 “뛰어난 코칭 및 분석 역량과 더불어 풍부한 지도 경험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비 조직



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쿠에바스 월커스 나성범

쿠에바스·월커스·나성범 등 KBO 8월 MVP 후보 발표

8일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앱에서 진행

2023 신한은행 쏠 KBO리그 8월 월간 MVP 후보로 총 8명의 선수가 선정됐다.
투수 중에서는 KT 박영현, 윌리엄 쿠에바스, 롯데 에런 월커스, 야수 중에서는 KIA 나성범, 박찬호, 삼성 구자욱, 두산 김재호, 한화 노시환이 후보로 선정돼 8월 MVP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박영현은 KT 중간 계투진의 ‘믿음맨’으로 성장했다.
박영현은 KT가 8월에 치른 23경기 중 15경기에서 나와 10홀드와 3세이브를 기록하며 승리를 지켜냈다. 2일 수원 SSG 전부터 16일 잠실 두산전까지는 8경기 연속 비자책점 투구를 보여주기도 했다.
8월에만 10홀드를 추가하며 시즌 홀드 28개를 기록하고 있는 박영현은 22홀드로 2위에 올라있는 SSG 노경준에 크게 앞서 있어 시즌 홀드 부문 1위도 가시권에 있다.
쿠에바스 역시 월간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8월 5경기에서 전부 QS+(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고 승리까지 기록해 5승(1위)을 수확했다. 쿠에바스는 36이닝 동안 2자책점으로 평균자책점 0.50(1위)을 기록, 탈삼진까지 37개(2위)를 거둬들이며 8월 한 달간 대

단한 활약을 보여줬다.
시즌 8승 0패를 기록하고 있는 쿠에바스는 남은 시즌 패배 없이 2승 이상 기록한다면 10승 이상 기록 선수에게 수여되는 승률상도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KBO리그에 입성한 월커스는 한 달 만에 월간 MVP 후보에 올랐다.
월커스는 좋은 구위를 바탕으로 탈삼진 39개를 속아내며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승운은 따르지 않아 등판한 6경기에서 2승만 기록했지만 37%이닝(공동 3위) 투구하며 6자책점만을 허용해 평균자책점 1.43(2위)을 기록했다. 31일 대전에서는 한화를 상대로 팀의 7연패를 끊어내는 투구로 롯데에게 승리를 안겼다.
나성범은 KIA의 상승세를 주도하며 타율 0.376(85타수 32안타)을 기록했다.
나성범은 8월 출장한 22경기에서 멀티히트만 11번을 때려냈다. 또한 5홈런(3위), 22타점(3위) 및 장타율 2위(0.647) 등 주요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KIA의 타선을 이끈 박찬호도 후보에 올랐다. 타격 지표 전반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박찬호는 89타수 34안타(공동 4위)로 타율 0.382(5위), 22득점(2위)과 0.466의 출루율(3위)을 올리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또한 6번의 베이스를 홈쳐도 도루 부문에서도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삼성 구자욱은 8월 85타수 35안타(공동 2위)로 타율 0.412(2위)를 기록했다. 안타 35개 중 2루타는 무려 10개였다. 장타력을 겸비한 구자욱은 홈런도 4개(공동 4위)를 추가하며 장타율 0.671(1위), 출루율 0.468(2위)로 높은 OPS(1.139)까지 선보였다.
두산 김재호는 8월 21경기에 출장해 3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안타를 쳤다. 특히 8월16일 잠실 KT 전부터 31일 잠실 LG 전까지 11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냈다. 무려 0.435의 타율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출루율 또한 5할이 넘는 0.538로 1위에 자리했으며, 득점까지 공동 4위(19득점)를 기록했다.
노시환이 2연속 월간 MVP 후보에 도전한다.
노시환은 82타수 20안타와 함께 홈런 8개(1위), 타점 24점(1위)을 때려내며 활약을 펼쳤다. 장타율 부문에서도 5위(0.598)에 올라 팀 승리에 보탬이 됐다. 특히 8월9일 수원 KT 전에서만 연타석 홈런을 포함한 3번의 홈런 아치를 그렸다. 시즌 30홈런을 기록해 홈런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편 8월 월간 MVP 투표는 4일부터 8일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솔)’에서 진행되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선정된다.